

# ‘막내린 흥 체제’... 무너진 보수, 언제 봄 올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홍준표 대표 전격 사퇴

자유한국당, 지도부 교체 불가피  
친이·친박 2선 후퇴 이어질 수도  
새로운 인물로 당 재건에 힘 쓸 듯  
보수 대안으로 바른미래당 거론도  
야권 전체 정계개편 이뤄져야 가능

13일 치러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무너진 보수진영에 봄은 오게 될 지, 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퇴장할 경우 차기 대표는 누가 되고, 정계개편 방향은 어떠한 지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70%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50% 정도인 여당 지지율로 인해 그동안 보수진영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 많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에 ‘봄’이 올 수도, 엄중한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 정당 지도부 교체, 소속 국회의원의 합집산 등 정국을 요동치게 할 대형 변수들이 예상된다.

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결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이 경우 야당이 선거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당에서 그동안 특유의 입담과 카리스마를 앞세웠던 ‘홍준표 체제’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6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선거 참패 시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미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 패배 위기에 홍 대표의 2선 후퇴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친박 진영을 다독여 ‘막말’과 문자까지 감수하며 대어 강경투쟁을 이끌

어온 홍 대표의 퇴진은 한국당 기존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지도부를 포함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일제히 2선으로 물러나고, 참신한 이미지의 인물이 새롭게 당권을 잡아 당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정욱 전 국회의원 등이 꼽힌다.

재보선 결과까지 여당의 압승으로 나온다면 이미 국회법상 시한을 넘긴 국회의장 선출 논의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월 1일 국회의장 선

출을 위한 분회의’를 제안했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전체 원 구성 협상을 마친 후 분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응하지 않았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 구성 협상도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논리다. 118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민주당 의석 수 차이가 5석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른 야당 국회의원이 탈당해 들어오는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관행적으로 의장을 내오던 원내 1당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1당이 공고해지면 한국당도 상식적인 선에서 원 구성 협상일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예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당은 바른미래당이다. 보수진영에서 나온 바른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 이후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타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만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 1당을 두고 격렬한 경쟁을 벌일 경우 바른정당은 순식간에 군소정당이 되거나 공중분해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반사이익으로 바른미래당이 보수 대안 정당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야

권 전체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선거 이후 여당은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 경쟁에 들어가게 된다. 추미애 대표 체제가 오는 8월에 끝나며 차기 지도부가 2년 뒤인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권 예비주자들은 이미 지방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동시에 당권을 노린 행보를 개시했다. 예상되는 당권주자는 ▲이종걸(5선) ▲박영선(4선) ▲우원식(3선) ▲전해철(재선) 등이 있다. 또한 관록의 이해찬(7선) 의원도 여러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겸임하며 당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한국당의 경우, 바른미래당 내부의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한국당에 대거 입당하게 되면 한국당은 다시 유일한 보수 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굳힐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정국 주도권은 한국당이 차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반드시 홍 대표의 완전한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일단 사퇴한 홍 대표가 다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당구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다면 자체가 재신임을 뜻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연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승자의 환호



최문순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운데)가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오른쪽은 최 후보의 아내 이순우씨.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연합뉴스

## 박·이·김, 잠룡 3인으로 향하는 시선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민주당 대권 경쟁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안 전 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 모두 선거에 승리하면서 향후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 전 지사에 이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악재에도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보수정당에서 독식해온 경기도를 탈환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스캔들로 경기지사의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을지라도 차기 대선 주자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안 전 지사를 포함해 정봉주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잃은 이른바 ‘미투’ 트라우마로 인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계열 언론

박원순 ‘3선 연임’ 당내 입지 다져야  
김경수 ‘드루킹 극복’ 친문 핵심인물  
이재명 악재에도 압승 vs 타격 입어

인으로 분류되는 김어준·주진우·정봉주 등이 이 당선자 스캔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언이 흘러나오면서 진보진영 전체의 스캔들로 비화될 여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스캔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에 따라 이 지사의 대권 후보로의 입지도 크게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에 이어 대통령 당선의 교두보 자리로 인식되는 서울시장직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잠룡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해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박 당선자는 일단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잘 이뤄지지 못했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복원해 서울시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원순 표 정책들에 대한 여론의 평가 추이를 살펴 보면서 향후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그 과정

에서 ‘친문’ 주류 세력과 거리가 먼 ‘비문’이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입지를 굳히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각된 인물은 단연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 당선자는 출마를 결심하기 전 ‘드루킹 사건’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지만 오히려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됐다. 특히 김 당선자는 친문의 핵심으로서 주요 광역단체장까지 맡게 돼 향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드루킹 특검이라는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사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특검 조사를 받게 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유력 대선후보로 평가받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송철호 울산시장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동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송 후보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오거돈 부산시장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부산시장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